순창, 미래 발전계획 수립 박차

군-전북연구원, 새로운 미래상 설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순창군이 5일 (재)전북연구원 전문가들과 함께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순창군의 새로운 미래상 설계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2월 말 실시한 착수보고회에 이어 '순창군 미래 신성장 전략과제 발굴'을 위한 전북연구원과의 2번째 정책 회의로서, (재)전북연구원 김형오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한 연구원 7명과 군정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8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 내용으로는 순창군이 직면한 민선 8기 군정 주요 사업들의 조속한 추진방안 및 타지자체 우수사업들의 도입 방안, 신규 정책사업 제안 등 군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다.

순창군이 5일 (재)전북연구원 전문가들과 함께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순창군의 새로운 미래상 설계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실시했다.

특히, 경천·양지천 수변 개발사업과 전원마을 500호 조성사업을 비롯해 요즘 각 지자체 인구증대 방안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농촌유학 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들이 주제로 다뤄졌다.

이를 토대로, 순창군의 문화·생태적 강점을 살려 전략적이고 경쟁력 있는 정책사업 발굴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군은 앞으로 4~5월에는 전북연구원의 핵심 연구진과 순창군 간부 공무원들과의 정책 워크숍을 거쳐 9월에는 순창군 미래를 담은 구체적인 정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간담회가 우리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며 "전북연구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순창군의 색채를 띤, 독창적인 미래 발전계획의 밑그림을 그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용역에서는 순창군민이 생각하는 순창군 발전방향 및 문제점 도출을 위하여 전문 설문조사 기관에 의뢰해 농업·농촌, 산업·일자리, 문화·체육·관광, 생태·환경, 지역개발·SOC, 복지·의료·사회통합 등 7개 정책분야에 대하여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주생면 교통정보센터 〈사진=남원시청 제공〉

남원시, 교통정보센터 본격 운영

교통 흐름 한눈에 파악, 불법주정차 시스템 이관해 총괄적 운영

남원시가 교통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고 체계적 제어를 통한 교통소통 원활을 위해 교통정보센터(주생면)를 개관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센터는 143.28㎡ 규모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2층을 리모델링하여 관제실, 회의실, 사무실, 센터실을 구축, 2023년에 처음으로 구축된 지능형교통체계 시스템과 기존 교통상황실에 구축돼 있던 불법주정차 시스템을 이관해 총괄적으로 운영·관리될 방침이다.

특히 남원시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수 있게 돼 교통의 흐름 개선 및 돌발상황에 신속 대응이 가능해졌다.

앞서 시는 2022년-2023년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5억원, 시비 10억원을 투입, 신호 온라인화(7), 스마트교차로(7), 주차정보제공시스템(5), 돌발상황관리시스템(1), 교통정보제공시스템(1)을 구축해 왔다.ㅇ

이에 따라 시스템 중 실시간 방향별 교통량을 수집하는 스마트교차로를 통해 최적의 신호주기를 산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신호 온라인화를 통해 경찰서와 연계하여 교통정보센터에서 실시간 신호 제어 또한 가능해졌다.

또한 올해 남원시는 CCTV를 활용해 차량을 감지하고 분석하여 실시간 주차 잔여 면수를 파악할 수 있는 주차정보제공 시스템을 확대 구축, 주차 혼잡 해소 및 불필요한 차량 운행 감소에 힘쓸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사회적 경제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순창군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강화와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본 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신규 사회적경제 진입 희망기업의 입문을 돕고, 기존 사회적 경제기업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 운영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이다.

주요 컨설팅 분야는 경영, 마케팅, 법무, 회계 세무 등이며 콘텐츠 제작, 판매 및 판로개척 등 경영개선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맞춤형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순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 5개소를 모집하여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달 8일까지 군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팀 (☎063-650-1337)로 제출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교육 실시

임실군이 지역 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사전방제 교육을 실시하고 적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약제를 공급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 등 장미과 식물에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잎·꽃·가지 등에 발생하여 과실이 불에 탄 듯 변하다가 식물 전체가 고사하는 증상이 발생하게 된다. 과수화상병은 국가검역병해충으로 발병시 적절한 치료제가 없어, 발병한 나무를 제거하거나 과원을 폐원하는 등 큰 피해가 따르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군은 화상병 적기 사전방제 교육과 더불어 화상병 증상 예찰 요령, 농작업일지·약제방제확인서 작성 방법, 과원 청결 관리 요령 등을 책자로 제작하여 배포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4월 30일까지 신청

임실군이 올해부터 소농직불금 지급 금액이 인상된 가운데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방문 신청, 접수한다.

군에 따르면 4월 30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한 비대면 간편 신청의 경우 대상자 사전 안내를 통해 스마트폰과 컴퓨터, ARS를 활용하여 2월 한 달간 진행됐다.

비대면 간편 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나 방문 신청 대상자는 신청 기간 내에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농직불금 지급 금액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130만원 미만인 면적직불금 대상자는 방문 신청하여 상담 후 소농자격 충족 여부에 따라 소농직불금 신청이 유리하다.

신규 대상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은 농지소재지이·통장과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으로부터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규 대상자는 농자재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 하기 위해서는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17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체류형 관광객 유치 확대 팸 투어 진행

남원시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서울, 부산, 대구 지역의 여행사 대표 60명을 초청해 체류형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팸 투어를 진행한다.

이번 팸 투어는 남원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기회 제공으로 여행사 대표들의 남원 관광상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팸 투어에 참가자한 여행사 대표들은 2024년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선정된 시립김병종미술관, 광한루원, 지리산허브밸리 등 남원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방문하고, 함파우소리체험관에서의 공연과 난타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팸 투어를 통해 여행사 대표들이 남원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남원의 체류형 관광객 유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번 팸투어를 시작으로 다양한 관광마케팅을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토요 국악나들이 3월부터 개최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토요일에 공연을 통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2024 토요국악나들이를 3월부터 12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예원당에서 개최한다.

토요국악나들이는 지역민들과 남원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전통공연예술의 진수를 선보이기 위한 국립민속국악원의 주말 기획 공연으로, 금년에는 기악합주, 산조, 판소리, 민요, 민속춤, 사물놀이 등 민속악 작품과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이 새롭게 구성한 작품에 이르기까지 국악을 오롯이 감상할 수 있는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질 예정이다.

첫 문을 여는 3월 16일에는 △태평소와 관현악 △판소리 심청가 △부채춤 △민요 액맥이, 지경다짐 △삼도농악가락을 감상할 수 있으며, 30일에는 △영남농악가락 △살풀이춤 △기악합주 '염원' △산조춤 △단막창극 '심봉사 황성 올라가는 대목'을 관람할 수 있다.

예약과 공연 소식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namwon.gugak.go.kr)과 카카오톡 채널(국립민속국악원 친구추가) 및 전화(063-620-2329)로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